

# 漢易 卦氣說의 학술적 배경에 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sup>1</sup>

은석민<sup>1</sup> \*

## A Study on the Academic Background of Gwae(卦氣) Theory of Yiology in Han(漢) Dynasty

Eun Seok-min<sup>1</sup> \*

<sup>1</sup>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Daegu Haany University

Gwae(卦氣) theory was one of the main theoretical foundation of yiology in the Han(漢)-dynasty. It was based on the concept that the trigram or hexagram of the book of change corresponds to the seasonal point such as 24 solar terms in one year, so there was so much influence from astronomy and divination system of that time in the development of theoretical principle of Gwae(卦氣) theory. Since Han(漢) Dynasty, the theoretical method such as Gwae(卦氣) theory that correlates the astronomy and divination system with the book of change, had become one of the main academic thoughts throughout the entire history in China, and it was also like that in medicine. Nevertheless there still exists the skeptical sights that Gwae(卦氣) theory was not a part of orthodox yiology, that had been developed by Confucian scholar and had also been recognized as the right path to the study of the book of change. Nowadays because of the new opportunity such as the excavation of the ancient silk script, this kind of controversy has moved on its another step. With regard to this problem, this article will treat the current thoughts about the Gwae(卦氣) theory and think about the substantial basis of each point of view.

**Key Words** : Guaqi-theory, Yi-zhuan, Meng-xi, Jing-fang

### 1. 서론

卦氣說은 漢代易學의 주류를 이루었던 象數學적 易學의 중심적인 부분으로서, 易學과 天文曆法이 결합된 이른바 ‘治曆明時’의 산물이다. 그것은 『周易』의 64卦 및 384爻를 일정한 규율에 따라 1년 중의 四時, 12月, 24節氣 및 72候와 서로 관련짓는 것을 기본적

인 골격으로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漢代의 易學家들이 『周易』의 내용을 해석하고 人事의 길흉을 예단하는 筮法체계를 세우는 주된 방법이었다. 즉 卦氣說은 天文學과 陰陽五行說의 영향으로 天人感應, 陰陽二氣의 변화, 五行의 生克 및 運數 등의 개념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 일종의 占筮체계로서, 天意를 헤아리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술적 특징을 바탕으로 卦氣說은 漢代 이후로 ‘氣’의 개념을 중심으로 자연의 변화를 논함에 있어 그 사유체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卦氣說의 연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아직 다소의 논란이 있

\* 교신저자: 은석민,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eskmin@dhu.ac.kr Tel : 010-7178-3729.  
접수일(2008년 7월 25일), 수정일(2008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14일)

으나 일반적으로 西漢代의 저명한 易學家인 孟喜가 그 단초를 세우고 이후 京房에 의해 그 이론적 틀이 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孟喜와 京房에 의해 卦氣說을 비롯한 漢代의 象數學이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고, 이후 東漢代에 荀爽, 鄭玄, 虞翻 등에 의해 그 이론체계가 더욱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漢代에 『易』을 陰陽五行論적으로 해석한 『易緯』에서는 卦氣說이 九宮八風說, 四正四維說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당시의 象數學적 사유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象數學적 사유체계는 『易』의 내용을 ‘氣’의 개념을 바탕으로 陰陽五行의 틀 내에서 해석하면서 한의학의 이론체계에 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른바 ‘醫易同源’의 설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易學史를 통해 볼 때 漢代에 정립된 象數學적 易學 및 그 사유방식은 상당한 부침의 역사를 걸어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점은 또한 한의학의 사유체계에 대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象數學적 사유방식의 이러한 부침의 역사는 당연히 그것이 지니고 있는 학술적 성격에 기인한 것인데, 현실세계에서의 실제적 경험이나 이성적 사유를 기반으로 한 학술체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象數學적 사유체계가 비판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큰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본 문장은 漢代 卦氣說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면서 그 학술적 배경에 대한 논의를 통해 象數學적 사유의 본질에 대한 일말의 실마리를 엿보고자 한다.

오늘날 漢代 卦氣說의 학술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易學의 정통을 잇고 있는나이의 질문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말하는 易學의 정통이란 전통적으로 孔子를 대표로 하는 儒家에서 철학적 수양을 목표로 易을 대했던 학술적 입장을 말한다. 卦氣說을 비롯한 漢代의 象數學 특히 西漢代의 象數學은 기본적으로 占筮를 위한 이론체계라는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易學의 정통이라고 인식되는 사유체계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나가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된 논쟁은 근래에 馬王堆帛書 『易傳』과 같이 易學

史와 관련된 문헌고증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문헌기록들에 의해 새롭게 촉발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漢代의 卦氣說을 비롯한 象數學 전반은 思想史적인 면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思想史 전반을 바라보는 큰 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漢代 象數學 전반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문장은 먼저 漢代 卦氣說의 학술적 성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다음으로 그것과 易學의 정통으로 인식되어 온 孔子의 易學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하여 易學史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문의 하나인 孔子와 易學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2. 漢易 卦氣說의 학술사상

漢代易學의 卦氣說에서 卦氣의 氣란 먼저 節氣를 뜻하며, 그 다음으로 節氣의 변화를 일으키는 陰陽의 두 기운을 뜻한다. 그리고 卦氣說이란 『易』의 卦를 節氣에 따른 物候의 변화 및 陰陽의 두 기운의 消息을 나타내는 부호계통으로 보는 것이다. 漢代에는 대략 두 가지 유형의 卦氣說이 제기되었는데, 하나는 六十四卦卦氣說이고 다른 하나는 八卦卦氣說이다.

먼저 孟喜<sup>1)</sup>의 卦氣說은 六十四卦卦氣說에 속한다. 즉 孟喜의 卦氣說은 『周易』의 64卦를 통해 1년 중의 節氣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서, 孟喜로부터 비롯된 漢代의 卦氣說은 『易傳』 가운데 특히 「說卦傳」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說卦傳」의 내용에 의하면 坎, 震, 離, 兌의 네 괘는 四方의 正位에 위치하는데, 이로부터 이 卦들은 四時之正을

1) 孟喜: 東海蘭陵(지금의 山東蒼山縣)人. 漢代의 昭帝, 宣帝 시기의 인물로 字는 長卿이다. 施仇, 梁丘賀 등과 함께 田王孫으로부터 易을 배웠으며, 漢代 초에 易을 전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한 田何의 再傳弟子이다. 漢書藝文志에 의하면 그의 저작으로 孟氏京房11篇, 災異孟氏京氏66篇, 孟氏章句2篇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모두 전하지 않으며, 오늘날 孟喜의 易學思想을 연구하는 것은 주로 그의 孟氏章句의 내용 일부가 唐僧 一行의 『卦議』에 인용된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뜻하여 四正卦가 되고, 艮, 巽, 坤, 乾의 네卦는 四方의 偏位에 위치하여 四時가 교대되는 것을 뜻하므로 四維卦가 된다. 이를 기초로 孟喜의 卦氣說에서는 四正卦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唐代的 승려 一行<sup>2)</sup>이 저술한 『卦議』에는 이와 같은 孟喜의 卦氣說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坎, 震, 離, 兌의 네괘는 24節氣마다 차례로 하나의 爻가 주관한다. 그 시작은 冬至, 夏至, 春分, 秋分이다. 坎卦는 陰으로써 陽을 감싸므로 正北方에서 비롯된다. 아래로부터 陽이 미약하게 動하되 상승하나 다 오르지 못하는 못한다. 2월에 정점에 달하여 응축하는 기운이 다하면 坎卦의 운이 다하게 된다. 春分은 震卦로부터 비롯되는데, 만물이 소생하는 때에 이를 주관하면 群陰이 化하여 이를 따른다. 正南方에서 정점에 달하여 풍성해지는 변화가 다하면 震卦의 공이 다하게 된다. 離卦는 陽으로써 陰을 감싸므로 正南方에서 비롯된다. 陰이 땅 밑으로부터 미약하게 생하되 모여지나 드러나진 않는다. 8월이 되어 밝은 빛의 기운이 다하면 離卦의 운이 다하게 된다. 仲秋에는 兌卦에서 陰이 形을 갖추게 되는데, 만물이 소멸되는 시기에 이를 주관하면 群陽이 하강하면서 이를 따른다. 正北方에서 정점에 달하여 天澤의 베풀이 다하면 兌卦의 공이 다하게 된다. 그러므로 陽七의 靜함은 坎卦에서 비롯되고 陽九의 動함은 震卦에서 비롯되며, 陰八의 靜함은 離卦에서 비롯되고 陰六의 動함은 兌卦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四象의 변화는 모두 六爻를 겸하게 되어 中氣와 節氣의 應함이 갖추어진 다.”<sup>3)</sup>

2) 一行(683-727): 중국 唐代的 저명한 天文學家이자 佛學家이다. 魏州昌樂(지금의 河南省 南樂縣)人으로서 본명은 張遂이다. 다수의 인도불경을 번역하였으며, 玄宗의 명으로 大衍曆을 편수하였다.

3) 新唐書 卷二十七上 曆志三上. 景仁文化社. p.598. “…… 坎震離兌, 二十四氣, 次主一爻. 其初, 則二至二分也. 坎以陰包陽, 故自北正. 微陽動于下, 升而未達. 極于二月, 凝滯之氣消, 坎運終焉. 春分出于震, 始據萬物之元, 爲主于內, 則群陰化而從之. 極于南正, 而豐大之變窮, 震功究焉. 離以陽包陰, 故自南正. 微陰生于地下, 積而未章. 至于八月, 文明之質衰, 離運終焉. 仲秋陰形于兌, 始循萬物之末, 爲主于內, 群陽降而承之. 極于北正, 而天澤之施窮, 兌功究焉. 故陽七之靜始于

兌卦에서 坎, 震, 離, 兌의 四正卦는 각각 冬, 春, 夏, 秋의 四時를 상징하며, 이와 같은 四時의 象이 형성되는 것은 곧 陰陽의 두 기운의 消息에 바탕을 둔 것이다. 四正卦는 각기 24節氣 중의 여섯 節氣를 주관하는데, 즉 冬至로부터 驚蟄까지는 坎卦가 주관하고 春分부터 芒種까지는 震卦가 주관하며, 夏至로부터 白露까지는 離卦가 주관하고 秋分부터 大雪까지는 兌卦가 주관한다. “次主一爻”는 한卦마다 6개의 爻가 있어 각 爻마다 하나의 節氣를 주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其初則二至二分”은 四正卦의 初爻가 각각 冬至, 夏至, 春分, 秋分に 배속됨을 뜻한다. 그리고 이하의 문장은 四正卦가 四時를 주관하게 되는 것에 대해 해석하고 있는데, 즉 四時의 기운이 盛함으로부터 쇠퇴의 과정을 거쳐 기운의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象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坎, 震, 離, 兌의 四正卦는 각각 少陽, 太陽, 少陰, 太陰의 時의 象을 내포하는데, ‘陽七’, ‘陽九’, ‘陰八’, ‘陰六’이 각각 少陽, 太陽, 少陰, 太陰을 뜻한다.

한편 四正卦로 대표되는 四時 및 24節氣의 象은 나아가 매 달마다의 節氣의 기후 및 매 달의 각각의 날 등에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四正卦 이외의 六十卦이다. 즉 六十卦는 四正卦의 틀로 나타내어지는 개념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대된 것으로서, 즉 六十卦가 四正卦에 통섭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4節氣는 12개월에 대응되는데, 즉 한 달에는 두 개의 節氣가 있다. 그리고 매 節氣는 또한 初, 次, 末의 三候로 나뉘며, 따라서 1년에는 72候가 있다. 이 72候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六十卦이다. 六十卦는 매 달마다 다섯 개씩 각기 상응하는 달에 배속된다. 그리고 1년은 364와 1/4일이므로 六十卦는 각기 6과 7/80일을 맡게 된다.

이와 같은 孟喜의 卦氣說은 『易傳』 중의 「說卦傳」 외에도 『禮記·月令』, 『呂氏春秋·十二紀』, 『淮南子』의 「天文訓」과 「時則訓」 등에 또한 그 연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몇 편들의 내용은 1년 중의 기후의 변화를 다루고 있으며, 그 안에는 24節氣의 구분이나 72候 등을 언급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坎, 陽九之動始于震, 陰八之靜始于離, 陰六之動始于兌. 故四象之變, 皆兼六爻, 而中節之應備矣.”

하여 孟喜는 64卦를 통해 1년 중의 節氣의 변화를 설명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가 坎, 震, 離, 兌를 四正卦로 하고 그 卦들이 1년 중의 네 계절을 주관한다고 한 것은 또한 『說卦傳』의 八卦方位說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sup>4)</sup>

이후 京房<sup>5)</sup>은 孟喜의 뒤를 이어 卦氣說의 이론체계를 더욱 심화시켰는데, 그의 卦氣說은 孟喜의 것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그는 『京氏易傳』에서 “龍德十一月在子在坎卦左行, 虎刑五月午在離卦右行.”<sup>6)</sup>이라 하였는데, 이는 坎卦가 冬至를 주관하고 離卦가 夏至를 주관한다고 한 것으로서 孟喜의 卦氣說의 경우와 같다. ‘龍德’과 ‘虎刑’이라는 용어는 본래 『淮南子·天文訓』에서 “冬至爲德”, “夏至爲刑”<sup>7)</sup>이라 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冬至에는 陽氣가 싹트기 시작하여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하므로 이를 일러 ‘德’이라 한 것이고, 夏至에는 陰氣가 생하기 시작하여 만물이 쇠락하기 시작하므로 이를 ‘刑’이라 한 것이다. 또한 京房은 “陰從午, 陽從子, 子午分行. 子左行, 午右行, 左右吉凶. 吉凶之道, 子午分時.”<sup>8)</sup>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子午는 冬至와 夏至를 말하는 것이며 이 내용은 陰陽二氣의 개념을 통해 孟喜의 卦氣說을 해석한 것이다.

한편 京房의 卦氣說은 孟喜의 것과 다른 점도 있는데, 그 첫째는 坎, 離, 震, 兌의 四正卦를 1년의 日數 중에 넣었다는 것이다. 一行은 『卦議』에서 孟喜의 설을 인용한 후 이어 京房의 卦氣說에 대해 “京氏又以卦爻配期之日, 坎離震兌, 其用事自分至首, 皆得八十分日之七十三. 頤·晉·升·大畜, 皆五日十四分, 餘皆六日七分.”<sup>9)</sup>이라 평했는데, 여기에서 “期”란 1년을 뜻하는 것이다. 孟喜는 六十卦의 360爻를 1년의 日數에

배속시켰음에 반해 京房은 六十四卦의 364爻를 1년의 日數에 배속시킨 것이다. 그 日數의 분배를 보면, 四正卦의 初爻는 夏至, 冬至, 春分, 秋分을 주관하여 각기 1과 73/80일을 맡으며, 頤, 晉, 升, 大畜의 네卦는 각기 四正卦의 앞에 놓여 각기 5와 14/80일을 맡는다. 그리고 나머지 卦들은 모두 6과 7/80일을 맡는다. 이와 같은 내용은 孟喜의 卦氣說과 달리 四正卦를 1년 중의 특정한 달에 배속시킨 것으로서, 즉 坎卦는 11월에 해당하고 離卦는 5월에 해당하며, 震卦는 2월에 해당하고 兌卦는 8월에 해당한다. 그리고 八卦의 나머지 네卦 가운데 乾卦는 立冬을 주관하여 10월에 배속되고, 坤卦는 立秋를 주관하여 7월에 배속되며, 巽卦는 立夏를 주관하여 4월에 배속되고 艮卦는 立春을 주관하여 正月에 배속된다. 이는 결국 후대에 八卦卦氣說로 불린 것으로서, 京房이 卦爻를 1년의 日數에 배속시킨 것과 함께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 3. 卦氣說과 孔子易의 관계

#### 1) 卦氣說이 孔子易의 계보에 속한다는 입장

##### (1) 孔子의 易學과 卦氣說

孟喜와 京房의 卦氣說은 象數學적인 각도에서 『周易』에 접근했으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占筮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周易』을 공부하는 대의는 占筮를 통한 吉凶의 豫斷보다는 철학적 수양의 측면에 그 정통성을 두고 있는데, 이는 儒家적인 전통을 통해 정립된 것이며 그 중심에는 孔子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漢代의 卦氣說 나아가 象數易學이 과연 『易』의 정통성과의 관련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어떤 학술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의 문제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은 현재 대체적으로 두 종류의 견해로 나뉘고 있는데, 그 각각의 견해는 卦氣說과 孔子의 易學과의 학술계통 상의 관련성 및 卦氣說의 사상적 실질과 관련하여 다른 관점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漢代의 卦氣說이 孔子의 易學의 계보를 잇

4) 朱伯崑. 易學哲學史第一卷. 昆侖出版社. 2005. pp.133-134.  
 5) 京房(B.C.77-B.C.37): 東郡頓丘(지금의 河南清風西南)人. 西漢代의 학자로서 본래는 姓이 李이고 字는 君明이다. 焦延壽로부터 易을 배웠으며, 元帝 제위 시에 博士로 임명되었고 관직이 魏郡太守에까지 이르렀다. 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현재 京氏易傳三卷만이 전하고 있다.  
 6) 郭彙. 京氏易傳導讀卷下. 齊魯書社. 2002. p.134.  
 7) 張雙棣. 淮南子校釋上. 北京大學出版社. 1997. pp.295-296.  
 8) 郭彙. 京氏易傳導讀卷下. 齊魯書社. 2002. p.133.  
 9) 新唐書 卷二十七上 曆志三上. 景仁文化社. p.598.

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孔子로부터 비롯된 易學의 학술계통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史記』 및 『漢書』의 기록이 주된 근거가 되어 왔다. 먼저 『史記·仲尼弟子列傳』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孔子→(魯)商瞿→(楚)馯臂子弘→(江東)矯子庸疵→(燕)周子家豎→(淳于)光子乘羽→(齊)田子莊何→(東武)王子中同→(菑川)楊何

그리고 『漢書·儒林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sup>11)</sup>

孔子→(魯)商瞿子木→(魯)橋庇子庸→(江東)馯臂子弘→(燕)周丑子家→(東武)孫虞子乘→(齊)田何子莊→

(東武)王同子中→(菑川)楊何……(夏陽)司馬談……司馬遷

(雒陽)周王孫

(沛)施仇

(梁)丁寬→(梁)田王孫→(東海)孟喜

(琅邪)梁丘賀

(齊)服生

(梁)項生

이상의 학술계통에서 漢代 초에 『易』을 전수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田何<sup>12)</sup>로 생각되고 있으며, 그에 대해 『漢書·儒林傳』에서는 “漢興, 田何以齊田徙杜陵, 號杜田生, 授東武王同子中. 雒陽周王孫·丁寬·齊服生, 皆著『易傳』數篇.”<sup>13)</sup>이라 하였다. 그래서 『漢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孟喜의 象數學적인 易學이 田何로부터의 학술계통을 잇는 것으로 보

는 것에 무리가 없는 듯이 보이나, 『漢書·儒林傳』에서의 다음과 같은 내용은 孟喜의 象數學적인 易學의 학술계통과 관련하여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孟喜는 字가 長卿이며 東海蘭陵人이다. 그의 부친 孟卿은 『禮經』과 『春秋』에 밝아 后蒼, 疏廣 등에게 학문을 전수하였으니, 세상에 전하는 『后氏禮』, 『疏氏春秋』가 모두 孟卿에게서 나온 것이다. 孟卿은 『禮經』과 『春秋』의 내용이 번다함으로 인해 孟喜로 하여금 田王孫에게 『易』을 배우도록 하였다. 孟喜는 스스로 우쭐대길 잘하였는데, 『易』家候陰陽災變書를 얻은 후 이를 스승인 田王孫이 임종 시에 孟喜에게 홀로 전하였다고 거짓으로 말하였으며, 모든 儒家들이 이를 부러워하였다. 동문인 梁丘賀는 사실을 밝혀 말하기를 ‘스승의 임종 시에 施仇가 이를 지켰고 당시에 孟喜는 東海로 돌아갔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孟喜는 同郡의 白光少子와 沛 땅의 翟牧子兄에게 易을 전수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博士가 되었다. 이로부터 翟孟白의 易學이 있게 되었다.”<sup>14)</sup>

윗 문장의 내용 중에서 孟喜가 그의 스승인 田王孫으로부터 홀로 전수받았다고 한 ‘『易』家候陰陽災變書’에 대해 孟喜의 동문인 梁丘賀 등이 그것이 스승인 田王孫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 점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易』家候陰陽災變書’가 곧 孟喜의 象數學적인 易學의 바탕이 된 것이라 할 때 그것이 孔子의 易學의 계보 상에서 전수되어 온 것이냐 아니냐가 논쟁의 핵심인 것이다. 여기에서 ‘『易』家候陰陽災變書’가 만약 孔子易學의 계통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면 梁丘賀 등의 말대로 孟喜는 다른 계통의 異說을 얻은 후 거짓을 말한 것이 된다. 그러나 孟喜의 말을 인정한다면 그의 스승인 田王孫이 분명히

10) 何澤恒. 孔子與易傳相關問題覆議(續). 周易研究. 2001年第2期. p.35.

11) 何澤恒. 孔子與易傳相關問題覆議(續). 周易研究. 2001年第2期. p.35.

12) 田何: 생졸년 미상. 淄川(지금의 山東淄博市)人이며, 字는 子莊 또는 子裝이라 하였다. 후에 杜陵(지금의 西安市 東남쪽) 지역으로 이주해 살아 杜田生으로 불리웠으며, 西漢代 今文易學의 창시자이다.

13) 班固. 漢書卷八十八. 中華書局. p.3597.

14) 班固. 漢書卷八十八. 中華書局. p.3599. “孟喜, 字長卿, 東海蘭陵人也. 父號孟卿, 善爲『禮』, 『春秋』, 授后蒼·疏廣. 世所傳『后氏禮』, 『疏氏春秋』, 皆出自孟卿. 孟卿以『禮經』多, 『春秋』煩雜, 乃使喜從田王孫授『易』. 喜好自稱譽, 得『易』家候陰陽災變書, 詐言師田生且死時枕喜膝, 獨傳喜, 諸儒以此耀之. 同門梁丘賀疏通證明之, 曰: ‘田生絕于施仇手中, 時喜歸東海, 安得此事?’……喜授同郡白光少子沛翟牧子兄, 皆爲博士. 由是有翟孟白之學.”

제자들 가운데 孟喜에게만 전수한 어떤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孟喜 뿐 아니라 京房에 대해서도 있어 왔는데, 『漢書儒林傳』을 보면 京房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京房은 梁나라 사람인 焦延壽로부터 『易』을 전수 받았다. 焦延壽는 일찍이 孟喜에게 『易』에 대해 물었다고 하였다. 孟喜가 세상을 떠나자 京房은 焦延壽의 『易』이 바로 孟喜의 易學이라고 여겼으나 翟牧과 白生은 이를 부정하였다. 成帝의 재위 시에 劉向은 서적들을 校閱하면서 『易』에 관한 설들을 고찰하였는데, 『易』에 관한 모든 설들이 다 田何·楊叔·丁將軍의 학문을 근본으로 하여 그 틀이 기본적으로 같으나 오직 京房만은 이와 다르다고 하였으니, 焦延壽가 홀로 隱士의 설을 얻은 후 이를 孟喜의 학문이라고 한 것을 두둔한 것으로서 이는 다른 諸家の 설과 다른 것이다.”<sup>15)</sup>

이 내용 역시 京房의 易學의 학술계통과 관련하여 孟喜의 경우와 같은 논란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孟喜로부터 京房으로 이어지는 象數學적인 易學이 孔子의 易學의 계보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 계보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劉大鈞은 『易』의 ‘古義’와 ‘今義’의 개념을 통해 이 문제에 답하고 있다.<sup>16)</sup> 즉 孟喜와

京房의 易學과 관련된 계보상의 논쟁은 漢代 초에 易學의 전승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田何가 『易』을 전수하는 데 있어 古義와 今義를 나눈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漢書儒林傳』에 의하면 “丁寬, 字子襄…… 讀易精敏, 材過項生, 遂事何. 學成, 何謝寬, 寬東歸, 何謂門人曰: ‘易以東矣!’ 寬至雒陽, 復從周王孫受古義, 號『周氏傳』.”<sup>17)</sup>이라 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당시 丁寬은 周王孫 등과 함께 田何에게 『易』을 배우면서 田何로부터 가장 인정을 받는 제자였다. 그런데 丁寬은 田何의 문하에서 수학을 마친 후 다시 雒陽으로 가 周王孫에게서 『易』의 古義를 전수받았다. 이런 정황은 당시에 田何が 『易』을 전수하는 데 있어 周王孫에게는 『易』의 古義를 전수하였고 이는 『周氏傳』으로 불리웠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田何が 周王孫 이외의 다른 제자들에게는 『易』의 今義만을 전해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황은 『易』의 전수에 있어 古義와 今義가 나뉘어 전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孟喜는 스승으로부터 홀로 『易』의 古義를 전수받았으며, 다른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또한 劉大鈞은 漢代 초의 易學의 전승에 있어 이미 今義와 古義의 구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秦始皇이 焚書를 행했을 당시 『周易』의 古義는 여전히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周易』은 이른바 ‘卜筮之書’로 여겨져 그 재난을 면할 수 있었다. 漢代 초에도 古義는 여전히 전승되고 있었으며, 이후 漢武帝 시기에 儒學만을 정통으로 인정한 후로는 『易』의 今義가 官學에서 정통으로 여겨지면서 古義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sup>18)</sup>

그렇다면 여기에서 田何는 『周易』을 전수하는 데 있어 왜 古義와 今義를 나누어 전수하였고, 또한 古

傳의 내용을 해석한 것으로서, 당시에 이미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易』의 今義에 象數學적 개념의 틀을 덧씌운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易의 古義에서 陰陽의 변화를 살펴 吉凶을 추단한다는 그 본질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劉大鈞. 周易古義考. 中國社會科學. 2002年 第5期. p.142.

17) 班固. 漢書卷八十八. 中華書局. p.3597.

18) 劉大鈞. 周易古義考. 中國社會科學. 2002年 第5期. p.142.

15) 班固, 漢書卷八十八, 中華書局, p.3601. “京房受『易』梁人焦贛延壽. 延壽嘗從孟喜問『易』. 會喜死, 房以爲延壽『易』即孟氏學, 翟牧白生不肯, 皆曰非也. 至成帝時, 劉向校書, 考『易』說, 以爲諸『易』家說皆祖田何楊叔丁將軍, 大誼略同, 唯京氏爲異, 党焦延壽獨得隱士之說, 託之孟氏, 不相與同.”

16) 여기에서 말하는 ‘今’과 ‘古’의 의미는 今文經學 내지 古文經學에서 말하는 今, 古와는 그 의미가 다른 것으로서, 즉 田何が 전한 今文易學과 費直이 전한 古文易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易의 今義는 德을 우선시함으로써 인문적 색채를 농후하게 보이는 것에 반해 易의 古義는 陰陽, 四時, 五行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吉凶을 예단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다. 田何의 今文易學과 費直의 古文易學에는 실제로 易의 今義와 古義가 모두 내포되어 있었다. 易의 今義는 孔子에 의해 확립된 것이며, 古義는 그 유래가 매우 오래 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西漢代 孟喜와 京房의 易學 중의 占筮를 주로 하는 象數學적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편 劉大鈞은 西漢代의 象數學에 비해 東漢代의 象數學은 기본적으로 다른 학술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互體, 爻辰, 連互 등의 개념을 통해 周易의 經文과 易

義의 내용은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의문에 대해 劉大鈞은 帛書『易傳』의 내용을 빌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sup>19)</sup> 帛書『易傳』중의 「要」편에서는 “子贛貢曰：夫子亦信元筮乎？子曰：吾百占而七十當，唯周梁山之占也，亦必從元多者而已矣。子曰：易，我後元祝卜矣！我觀元德義耳也。幽贊而達乎數，明數而達乎德，又仁守者而義行之耳。贊而不達于數，則元爲之巫，數而不達于德，則元爲之史，史巫之筮，鄉之而未也，好之而非也。後世之士疑丘者，或以易乎？吾求元德而已。吾與史巫同塗而殊歸者也。君子德行焉求福，故祭祀而寡也。仁義焉求吉，故卜筮而希也。祝巫卜筮元後乎？”<sup>20)</sup>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은 孔子의 易學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孔子는 占筮를 통해 吉凶을 판단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仁義와 德行을 통해 복을 구할 것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孔子가 『易』이 지니고 있는 占筮의 기능을 전적으로 부정했던 것은 아니며, 이는 그가 “五百占而七十當”이라 한 것으로부터 충분히 알 수 있다. 다만 孔子는 “贊而不達于數”，“數而不達于德”의 이른바 “史巫之筮”의 경지를 넘어설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孔子가 『易』을 대하는 입장은 “觀元德義”를 占筮에 앞세우는 人文적인 성향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孔子의 제자들은 孔子의 뜻을 따라 『易』을 仁義와 德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易』의 今義를 정립하였으며, 劉大鈞은 帛書『易傳』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이와 같은 『易』의 今義가 戰國時代에 이미 형성된 것이라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易』의 古義와 今義가 나뉘어 전해진 것은 帛書『易傳』중의 「要」편에서 “後世之士疑丘”라 한 대로 후

대의 儒家들이 孔子의 易學觀에 대해 잘못 이해할 것을 우려하여, 占筮를 바탕으로 象數學적인 성격을 지니는 古義에 대해서는 그 전수에 신증을 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 (2) 卦氣說과 『易傳』

漢代 이래로 『易傳』은 『易』에 대한 철학적 해석의 중심에 놓여 왔다. 그것은 『易』의 今義에 입각한 것으로서, 한편으로 『易傳』이 孔子의 저술이라는 古來의 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漢代의 卦氣說도 그 사상의 정신실질을 『易傳』과의 관계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漢代의 卦氣說을 易學의 정통으로 인정하는 학자들은 『易傳』의 내용과 卦氣說의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卦氣說의 象數學적 개념이 『易傳』의 철학사상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易』의 古義가 今義의 형성에 기초가 되는 것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관점에서는 卦氣說이 孟喜와 京房을 중심으로 하는 성숙된 형태의 卦氣說과 그 이전의 초기 형태의 卦氣說로 구분되고 있으며, 성숙된 형태의 卦氣說은 『易』의 古義의 성격으로서의 초기 형태의 卦氣說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漢代의 卦氣說을 그 이전의 卦氣說의 연장선상의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漢代 이전에 卦氣說의 형태를 갖고 있는 문헌기록이 존재했는지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劉大鈞은 漢代 이전의 卦氣說에 대해 선대의 많은 학자들이 『子夏易傳』을 언급했던 것을 그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sup>21)</sup> 朱震은 『漢上易傳叢說』에서 “鮒，子夏作蝦蟆，此五月卦也。”라 하였고, 張惠言은 『易義別錄』에서 朱震의 설에 동의하면서 “朱子發云，井爲五月之卦，‘蝮蠃鳴，故曰蝦蟆’”라고 하였다. 또한 朱震의 『漢上易傳』은 井卦의 九五爻에 대한 주해에서 “井，五月卦，陰

19) 1973년 말 중국 湖南省 長沙 교외의 馬王堆 3호 漢墓에서 12만여 자에 달하는 帛書가 출토되었는데, 그 안에는 6편의 易傳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1992년 5월에 帛書 繫辭의 사진과 釋文이 공개된 데 이어 二三子, 衷, 要, 繆和, 昭力-편명은 연구자들에 의해 붙여진 것임- 등의 편들에 대해서도 여러 易學 연구자들에 의한 釋文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 내용을 볼 때 帛書易傳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易傳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것이 더 앞선 것인가 아니면 두 易傳이 서로 다른 계통의 판본인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漢代 초에 易을 전하는 서로 다른 전승계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 鄧球柏, 帛書周易校釋. 湖南人民出版社. 2002. p.573.

21) 여기에서 子夏易傳이란 四庫全書에 실려 있는 것과 같은 僞書 류의 것이 아니라 唐代 陸德明의 經典釋文이나 李鼎祚의 周易集解 등과 같은 관련저작에 인용된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劉大鈞은 子夏易傳을 저술한 子夏가 春秋시대 말기 孔子의 제자인 卜商이라고 주장하였다. 劉大鈞, 卦氣溯源, 中國社會科學, 2000年 5期, p.125.

氣自下而上.”이라 하였고, 惠棟의 『周易述』은 井卦의 九二爻에 대한 주해에서 “鮒, 蝦蟆, 子夏義, 井, 五月卦, 故有蝦蟆.”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易』의 卦들을 節候와 관련지은 것이다.

그리고 劉彬은 『漢書藝文志』에 실려 있는 ‘古五子’의 경우도 漢代 이전의 卦氣說의 한 예로 제시하고 있다. 즉 『漢書藝文志』의 「六藝略」 중의 ‘易類’에 “『古五子』十八篇”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古五子』란 春秋시기의 易學저작으로서 甲子·丙子·戊子·庚子·壬子の ‘五子’로 易의 陰陽의 변화를 설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卦氣說과 관련하여 『古五子』의 특징은 『易』의 卦를 五時에 배속시킨 점에 있는데, 이런 점은 『古五子』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었다. 『古五子』에서는 震, 離, 兌, 坎, 坤, 艮의 여섯 卦를 春夏秋冬 및 夏秋之間의 五時에 배속시켰는데, 즉 震卦는 春, 離卦는 夏, 兌卦는 秋, 坎卦는 冬, 坤卦와 艮卦가 夏秋之間에 배속되어 있다. 이처럼 『古五子』의 卦氣說은 다른 문헌에서의 卦氣說과는 달리 『易』의 卦를 五時에 배속시킨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卦氣說에 五行의 사상을 결합시킨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sup>22)</sup>

한편 『易傳』과 卦氣說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易傳』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易傳』의 내용들 가운데 卦氣說과 가장 관련성이 농후한 것으로는 「說卦傳」을 들 수 있는데, 그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帝出乎震, 齊乎巽, 相見乎離, 致役乎坤, 說言乎兌, 戰乎乾, 勞乎坎, 成言乎艮. 萬物出乎震, 震東方也, 齊乎巽, 巽東南也, 齊也者, 言萬物之絜齊也. 離也者, 明也, 萬物皆相見, 南方之卦也, 聖人南面而聽天下, 嚮明而治, 蓋取諸此也. 坤也者, 地也, 萬物皆致養焉, 故曰致役乎坤. 兌, 正秋也, 萬物之所說也, 故曰說言乎兌. 戰乎乾, 乾西北之卦也, 言陰陽相薄也. 坎者, 水也, 正北方之卦也, 勞卦也, 萬物之所歸也, 故曰勞乎坎. 艮東北之卦也,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 故曰成言乎艮.”<sup>23)</sup>

이상의 내용에서 볼 때 艮, 震, 巽, 離, 坤, 兌, 乾,

坎의 八卦는 東, 西, 南, 北, 東南, 東北, 西南, 西北 등의 八方과 春, 夏, 秋, 冬의 四季와 서로 배합되는 것이며, 이는 만물의 생성 및 발전과정에 있어 八卦가 시간적 순서 및 공간방위를 부여받게 되는 의의를 밝힘으로써 八卦卦氣說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京房의 卦氣說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京房의 八卦卦氣說에서 震卦는 春分에 해당하며, 이는 「說卦傳」에서 만물이 “出”한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 그리고 孫卦는 立夏에 해당하여 「說卦傳」에서 만물이 “齊”하게 된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 離卦는 夏至에 해당하여 만물이 성장하여 “相見”하게 된다고 한 것과 상통하며, 坤卦는 立秋에 해당하여 만물이 長成하여 “致養”하게 된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 兌卦는 秋分에 해당하여 만물이 풍성한 수확을 통해 “悅”하게 되며, 乾卦는 立冬에 해당하여 陰陽의 二氣가 서로 부딪쳐 다투게 된다. 坎卦는 冬至에 해당하여 만물이 歸藏하면서 “勞”하게 되고, 艮卦는 立春에 해당하여 지난 한 해가 “成終”하고 새로운 한 해가 “成始”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관성을 볼 때 「說卦傳」은 사실상 古人의 卦氣說을 기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관점의 설은 『易緯』에서도 이어지는데, 『易緯·乾鑿度』에서는 이를 기초로 나아가 八卦 및 八方을 十二月, 十二地支와 서로 관련 지음으로써 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sup>24)</sup> 그 밖의 전통문헌들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春秋繁露·循天之道』를 보면 “是故陽之行, 始于北方之中, 而止于南方之中. 陰之行, 始于南方之中, 而止于北方之中.”<sup>25)</sup>이라 하였고, 『春秋繁露·陰陽終始』에서는 “天之道, 終而復始, 故北方者, 天之所終始也, 陰陽之所合別也.”<sup>26)</sup>라고 하였다. 또한 『淮南子·

24) 易緯導讀. 齊魯書社. 2002年. pp.79-80. “震生物于東方, 位在二月. 巽散之于東南, 位在四月. 離長之于南方, 位在五月. 坤養之于西南方, 位在六月. 兌收之于西方, 位在八月. 乾制之于西北方, 位在十月. 坎藏之于北方, 位在十一月. 艮終始之于東北方, 位在十二月.”, “孔子曰, 乾坤, 陰陽之主也. 陽始于亥, 形于丑, 乾位在西北, 陽祖微據始也. 陰始于巳, 形于未, 據正立位, 故坤位在西南, 陰之正也. 君道倡始, 臣道終正, 是以乾位在亥, 坤位在未, 所以明陰陽之職, 定君臣之位也.”, “艮者, 止物者也, 故在四時之終, 位在十二月. …… 坤者, 地之道也, 形正六月.”

25) 閻麗. 春秋繁露譯注. 黑龍江人民出版社. 2003. p. 293.

26) 閻麗. 春秋繁露譯注. 黑龍江人民出版社. 2003. p. 211.

22) 劉彬. 早期陰陽家與卦氣說考索. 管子學刊. 2004年 第2期. pp.67-69.

23) 周易. 明文堂. 1997. pp.422-423.

詮言訓』에서 “陽氣起于東北，盡于西南。陰氣起于西南，盡于東北。陰陽之始，皆調適相似，日長其類，以侵(漸)相遠，或熱焦沙，或寒凝冰。”<sup>27)</sup>이라 한 부분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帛書『易傳』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卦氣說의 관련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관련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卦曰：‘履霜，堅冰至。’孔子曰：‘此言天時譖，戒葆常也。歲□之田產濕，以庠始于之□□□□□□守之□□□□□□□□德與天道始，必順五行，元孫貴而宗不滅。’”(「二三子」)<sup>28)</sup>

“易曰：‘履霜，堅冰至’，子曰：孫從之謂也。歲之義，始于東北，成于西南。君子見始弗逆，順而保。”(「易之義」)<sup>29)</sup>

“故易又天道焉，而不可以日月生辰盡稱也，故爲之以陰陽。又地道焉，不可以水火金土木盡稱也，故律之以柔剛。又人道焉，不可以父子君臣夫婦先後盡稱也，故爲之以上下。又四時之變焉，不可以萬勿盡稱也，故爲之以八卦。”(「要」)<sup>30)</sup>

이상의 세 편의 『易傳』의 내용들과 卦氣說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그 중의 ‘天時’, ‘歲’, ‘順’, ‘四時’ 등의 개념이나 ‘東北’, ‘西南’ 등의 방위에 관한 표현이 주로 卦氣說과 관련하여 주목되고 있다. ‘歲’의 개념은 고대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의 하나로서, 古代에는 이른바 ‘中氣’가 一周하는 것을 一歲로 여겼다. ‘歲’의 개념에 관해 『春秋繁露·天辯在人』과 『春秋繁露·天地之行』의 경우를 보면 “陰者，陽之助也，陽者，歲之主也”<sup>31)</sup>，“陰陽所以成歲”라고 하였다. ‘歲’의 의미는 中氣의 운행에 있으며, 따라서 이는 ‘歲’가 필히 天時 내지 四時에 ‘順’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順’하는 것인가? 바로 일정한 규율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帛書『易傳』 중의 「二三子」에서 말한 ‘順’의 의미도 결국 “歲之義，始于東北，成于西南”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始于東北，成于西南”은 中氣의 운행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八卦의 卦의 위치에 해당하는 공간적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상과 같은 시간, 공간상의 관점에 대한 기술을 통해 비로소 「二三子」에서 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종의 天時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운동의 기술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戰國時代 이래로 陰陽의 개념을 통해 『易』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성행하였는데, 이처럼 天道의 陰陽消息을 중시하는 학술사상은 자연히 『易』의 卦와 四時, 24節氣 등의 曆法지식의 결합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帛書『易傳』중의 「要」편의 다음과 같은 내용은 卦氣說적인 요소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夫損益之道，不可不審察也。吉凶之[門]也。益之爲卦也，春以授夏之時也，萬勿之所出也，長日之所至也，產之室也，故曰益。損者，秋以授冬之時也，萬物之所老衰也，長夕之所至也。故曰產。道窮焉而產，道□焉。益之始也吉，元冬也凶。損益之道，足以觀天地之變，而君者之事已。是以察于損益之變者，不可動以慢患。”<sup>32)</sup>

「要」편의 이 내용에서 益卦는 봄에 해당하고 巽卦는 가을에 해당한다. 漢代의 卦氣說에 의하면 益卦는 正月 立春 ‘東風解凍’, ‘蟄蟲始振’의 때에 위치하므로 ‘春以授夏之時也，萬勿(物)之所出也，長日之所至也’하는 것이고, 巽卦는 七月 立秋 후 ‘白露降’, ‘寒蟬鳴’, ‘天地始肅’의 때에 위치하므로 ‘秋以授冬之時也，萬勿(物)之所老衰也，長(夕)之所至也’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易傳』 중의 「雜卦傳」에서 “損益，盛衰之時也”라고 한 것과도 그 의미가 상통하며, 今本『易傳』이 卦氣思想을 통해 『易』을 해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象傳」에서는 巽卦에 대해 “損剛益柔有時，損益盈虛，與時偕行.”이라 하였고, 益卦에 대해 “益，動而巽，日進無疆，天施地生，其益無方。凡益之道，與時偕行.”이라 하였는데, 두 卦의 해석

27) 張雙棣. 淮南子校釋. 北京大學出版社. 1997. p. 1528.  
28) 鄧球柏. 帛書周易校釋. 湖南人民出版社. 2002. pp.457-458.  
29) 鄧球柏. 帛書周易校釋. 湖南人民出版社. 2002. p.561.  
30) 鄧球柏. 帛書周易校釋. 湖南人民出版社. 2002. p.576.  
31) 閻麗. 春秋繁露譯注. 黑龍江人民出版社. 2003. p.206.

32) 鄧球柏. 帛書周易校釋. 湖南人民出版社. 2002. p.576.

에서 모두 “與時偕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與時偕行”이라 함은 즉 春夏秋冬의 변화와 더불어 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損剛益柔”라 함은 즉 ‘損陽益陰’의 뜻으로서 秋冬에 해당하며, “日進無疆”, “天施地生” 등은 봄과 여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象傳」이 卦氣思想을 통해 巽卦와 益卦를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帛書「要」편의 출토는 바로 오늘날의 연구자들이 이런 관점을 갖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sup>33)</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漢代의 卦氣說이 孔子의 易學을 잇고 있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漢代 卦氣說이 지니고 있는 占筮적인 기능을 『易』의 古義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면서 그에 대한 문헌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卦氣說은 孔子易과 무관하다는 입장

漢代 卦氣說이 孔子의 易學을 잇는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卦氣說이 占筮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孔子의 易學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易』의 근본적 성격에 대해 철학서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면서, 이를 占筮와 관련짓기를 거부하는 한편으로 그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문헌기록과 관련된 면을 살펴보면, 梁韋弦은 『漢書儒林傳』의 기록에 대해 그 내용 자체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孟喜와 京房의 易學이 孔子易學의 계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孟喜의 경우를 보면 孟喜가 “得『易』家候陰陽災變書”한 후 이를 그의 스승인 田王孫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였으나 同門인 梁丘賀 등이 이를 부정한 것에 대해 梁韋弦은 그 자체 그대로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즉 孟喜가 홀로 田王孫으로부터 전수받았다고 한 것은 『易』의 古義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종류의 異說일 뿐이라는 것이다. 京房의 경우에 대해서도 梁韋弦은 『漢書儒林傳』의 기록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京房의 스승인 焦延壽는 단지 孟喜에게 자주 『易』에 관해 물었을 뿐이지 두 사람은 결코 師弟의 관계가 아니며, 또한 孟喜가 ‘『易』家候陰陽災變書’를 焦延壽에게 전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孟喜의 제자인 翟牧, 白生이 焦延壽의 易學이 孟喜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孟喜로부터 焦延壽를 거쳐 京房으로 이어지는 易學계통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焦延壽와 京房의 易學은 또 다른 異說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sup>34)</sup>

한편 문헌기록 상의 師承관계를 통해 학술계통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술사상의 정신실질을 통해 그 학술계통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梁韋弦은 역시 孟喜와 京房의 易學이 孔子易學의 학술계통을 계승했던 田何와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는 있더라도 결코 孔門의 正傳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帛書『易傳』까지를 포함해서 『易傳』 전반의 내용에 담겨 있는 先秦시기 儒家의 易學이 占筮를 중시하지 않고 義理를 탐구하는 것을 『易』의 宗旨로 삼았으며 이는 『易傳』에 담겨 있는 象數學적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孟喜와 京房의 易學은 전적으로 占筮를 위한 것으로서, 『易傳』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卦氣說 등의 다양한 이론적 수단을 통해 새로운 占筮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梁韋弦은 『易傳』의 내용과 卦氣說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漢代 卦氣說의 기본골격이 易卦와 24節氣, 72候의 결합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진정한 의미의 卦氣說은 漢代에 이르러서야 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梁韋弦은 劉大鈞 등이 인정하는 바의 漢代의 성숙된 卦氣說 이전의 先秦시기의 卦氣說에 대해 이는 卦氣說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sup>35)</sup>

33) 劉大鈞. 帛書易傳中的象數易學思想. 哲學研究. 2001年 第11期. p.50.

34) 梁韋弦. 孟京易學的來源. 史學集刊. 2003年 7月 第3期. pp.1-2.

35) 梁韋弦. 孟京易學的來源. 史學集刊. 2003年 7月 第3期. p.3.

#### 4. 孔子와 『周易』의 관계

卦氣說을 비롯한 孟喜와 京房의 易學에 대해 그 학술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이 孔子의 易學의 계보를 잇는 것인지의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孔子는 과연 易學의 발전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孔子가 『周易』을 공부했다는 사실에 관한 기록은 『論語·述而』에서 “加我數年，五十以學易，可以無大過矣.”<sup>36)</sup>라고 한 것과 『史記·孔子世家』에서 “孔子晚而喜易”，“讀『易』韋編三絕”<sup>37)</sup>이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論語·子路』의 내용을 보면 “子曰：南人有言曰，人而無恒，不可以任巫醫。善夫。不恒其德，或承之羞。子曰：不占而已矣.”<sup>38)</sup>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不恒其德，或承之羞”는 『周易』의 恒卦의 九三爻의 爻辭로서, 孔子가 제자들에게 대한 교육에 있어 『周易』의 내용을 인용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sup>39)</sup>

한편 孔子와 『周易』의 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孔子가 『易傳』 즉 이른바 ‘十翼’을 저술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인데, 이는 司馬遷이 『史記·孔子世家』에서 “孔子晚而喜『易』，序『象』·『繫』·『象』·『說卦』·『文言』.”이라 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宋代에 이르러서는 孔子가 十翼을 저술한 사실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학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최초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은 歐陽脩이다. 그는 『易童子問』에서 十翼이 孔子 한 사람에 의해 저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었다. 첫째 구양수는 「繫辭傳」 및 「文言傳」에서 “子曰”이라 한 부분이 孔子가 저술한 내용이 아니고 講師가 孔子의 이름으로 『易』을 해설한 내용이라 하였다. 둘째 「文言傳」에서 “元者善之長，亨者嘉之會”이라 한 부분은 『左傳·襄公九年』에서 “元，體之長也。亨，嘉之

會也。利，義之和也。貞，事之干也”라고 한 부분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sup>40)</sup>, 襄公九年은 공자가 태어나기 15년 전이며 『左傳』의 저자가 孔子의 문장을 인용하여 孔子 이전의 일을 논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易傳』의 각 편에 걸쳐 그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면들이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八卦의 유래에 대해 「繫辭傳」 및 「說卦傳」에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넷째는 「說卦傳」과 「雜卦傳」은 占筮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글일 뿐 孔子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여 歐陽脩는 十翼이 孔子 한 사람에 의해 저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十翼 가운데 「象傳」과 「象傳」만을 孔子의 저술로 인정하였다. 歐陽脩의 주장은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학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이후 清代의 崔述은 나아가 「象傳」과 「象傳」도 孔子의 저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康有爲 같은 경우는 『史記』의 내용 중의 “序『象』·『繫』·『象』·『說卦』·『文言』”의 여덟 글자가 漢代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삽입된 부분일 뿐 『史記』의 원문이 아니라고까지 주장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조하였으며,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 『易傳』은 孔子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며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가공되면서 편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論語』와 『史記』 등에 기록되어 있는 『周易』과 관련된 孔子에 대한 내용은 그 진위를 확실히 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것이었으며, 孔子가 『易傳』을 저술했다는 관점은 시종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sup>41)</sup>

그런 가운데 1973년 중국의 長沙 馬王堆漢墓에서 출토된 帛書『周易』은 孔子와 『周易』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帛書『易傳』 중의 「要」편에는 『易』에 대한 孔子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는데, 「要」편에서 “夫子老而好『易』，居則在席，行則在囊。有古之遺言焉，予非安其用，而樂其辭。後世之疑丘者或以『易』乎。子貢問，夫子以信其

36) 김학주 역주. 논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p.239.

37) 楊鍾賢, 郝志達 主編. 史記全譯卷三. 國際文化出版公司. p.377.

38) 김학주 역주. 논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p.356.

39) 楊亞利. 孔子作易傳述論. 山東師範大學學報. 2002年 第47卷 第6期. p.78.

40) 黃卓婭. 試析歐陽脩“『繫辭』等非聖人之作”說及其經學. 渤海大學學報. 第26卷 第5期. p.20.

41) 楊亞利. 孔子作易傳述論. 山東師範大學學報. 2002年 第47卷 第6期. p.79.

筮乎? 子曰, 我觀其德義耳, 吾與史巫同途而殊歸。”라고 한 부분은 孔子가 『周易』을 공부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 占筮에 앞서 義理를 중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要」편을 비롯한 帛書『易傳』 전반의 成書연대나 그 학술계통 등과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要」편의 이 내용 역시 孔子가 『易傳』을 저술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는 孔子와 『周易』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 5. 결 론

漢代 卦氣說의 학술적 배경 및 그 사상적 본질에 대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논쟁의 핵심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占筮체계로서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卦氣說을 비롯한 漢代의 象數學 전반이 이후의 사상적 전개에 기본적인 틀을 이루었음을 생각할 때 그에 대해 오늘날 卦氣說에 대한 과거의 평가를 아우르면서 또 다른 현대적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占筮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사상적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卦氣說을 易學의 정통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周易』이 그 전승과정에 있어 古義와 今義의 나뉘어 있었으며 漢代의 卦氣說은 『周易』의 古義를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帛書『易傳』의 기록에서 말하듯이 易學의 발전과정에서 『周易』의 古義는 今義의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古義를 계승한 漢代 卦氣說도 결국 易學의 정통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漢代 卦氣說의 출현에 대해 그것이 24節氣의 개념이 정립된 漢代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그것이 『易傳』 등의 기존의 易學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면서 전적으로 占筮만을 위한 이론체계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관점은 孟喜, 京房 등이 이미 철학적 수양서로서의 『周易』이 官學으로 자리 하던 당시에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術數에 기초한 占筮체계를 만들어 吉凶을 豫斷하고픈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易』의 정통이 철학적 수양을 위한 것이라 할 때, 그것은 상당 부분 세계를 바라보는 사유의 중심을 이른바 현실세계에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易』의 정통과 관련된 논의의 축에 있는 孔子는 인간의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탐색보다는 현실세계에 대한 탐구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孔子가 초월적인 세계를 완전히 부정했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앞에서 易에 관한 孔子의 입장으로 거론되었던 帛書『易傳』의 기록은 巫→史→德으로의 발전단계를 통해 현실세계와 초월적인 세계의 소통을 통한 易哲學의 정립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래 소통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것이 시대와 문화의 변천에 따라 대립적인 구도에 놓일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巫가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시대에는 초월적인 세계가 사유의 중심에 놓여 있었으나 史가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면서는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 점차 人文적인 사유가 짝트고 나아가 人文적 사유와 巫의 문화가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 놓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漢代 卦氣說이 易의 정통에 속하는 것이냐의 논쟁 역시 문헌학적인 고증과 더불어 그보다 더 중요한 사상적 관점에서 占筮와 易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학술적 관점이 논쟁의 저변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古代의 占筮는 분명 이성적인 사유의 틀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성적인 사유의 틀 내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지 우연에 속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占筮를 단지 우연으로만 인식하는 사유의 틀을 고수한다면 占筮가 모종의 자연의 이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그것에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占筮의 이론체계 및 행위가 모종의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면 그것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오늘날 자연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出版公司, p.377.

### 「논문」

1. 何澤恒. 孔子與易傳相關問題覆議(續). 周易研究. 2001年 第2期, p.35.
2. 劉大鈞. 周易古義考. 中國社會科學. 2002年 第5期, p.142.
3. 劉彬. 早期陰陽家與卦氣說考索. 管子學刊. 2004年 第2期, pp.67-69.
4. 劉大鈞. 帛書易傳中的象數易學思想. 哲學研究. 2001年 第11期, p.50.
5. 梁韋弦. 孟京易學的來源. 史學集刊. 2003年 7月 第3期, p3, pp.1-2.
6. 楊亞利. 孔子作易傳述論. 山東師範大學學報. 2002年 第47卷 第6期, p.78, 79.
7. 黃卓姬. 試析歐陽脩“『繫辭』等非聖人之作”說及其經學. 渤海大學學報. 第26卷 第5期, p.20.

### 「단행본」

1. 朱伯崑. 易學哲學史第一卷. 昆侖出版社. 2005. pp.133-134.
2. 郭彧. 京氏易傳導讀卷下. 齊魯書社. 2002. p.133, 134.
3. 張雙棣. 淮南子校釋上. 北京大學出版社. 1997. pp.295-296.
4. 新唐書 卷二十七上 曆志三上. 景仁文化社. p.598.
5. 班固. 漢書卷八十八. 中華書局. p.3597, 3599.
6. 鄧球柏. 帛書周易校釋. 湖南人民出版社. 2002. p.573.
7. 周易. 明文堂. 1997. pp.422-423.
8. 閻麗. 春秋繁露譯注. 黑龍江人民出版社. 2003. p.211, 293, 206.
9. 張雙棣. 淮南子校釋. 北京大學出版社. 1997. p.1528.
10. 鄧球柏. 帛書周易校釋. 湖南人民出版社. 2002. p.561, 576. pp.457-458.
11. 김학주 역주. 논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p.239.
12. 楊鍾賢, 郝志達 主編. 史記全譯卷三. 國際文化

